

지각 이론에 있어서 표상의 지위에 관하여

홍 경 남 (성균관대)

주 제 심리철학, 지각, 표상

주요어 감각자료, 표상, 에이어, 오스틴, 데넷, 포더

요약문 전통적으로 지각 이론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물음은 지각 주체와 지각 대상이 만나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흔히 이론가들은 '감각자료'와 같은 매개물이 이러한 만남을 이어준다고 주장하였다. 근대의 지각 이론은 이러한 감각자료를 '관념'이라는 말로 표현하였고, 현대의 지각 이론은 이를 '표상'이라는 말로 나타낸다. 표상을 말 그대로 이해하면 '외부 대상이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에 다시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나타남의 방식은 거울에 비친 영상이거나 두뇌의 신경적 조직에 구현된 활성 패턴과 같은 것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상식적으로 외부 대상과 직접 만난다고 믿는다. 이러한 상식적인 믿음은 모든 우리의 정신적 활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밑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다. 마음과 세계를 매개하는 계면으로서 표상을 내세우는 지각이론은 마음의 역할을 미리 주어진 세계의 특징을 회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 방식은 마음과 세계의 활동적인 상호작용의 구조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마음은 정적인 대상이 아니며, 세계 속에서 세계와 함께 스스로 변화해 가는 특성을 담고 있다. 마음은 거울과 같이 세계를 비추어내는 표상을 들일 여유가 없다.

1. 들어가는 말

<지각>은 우리가 세계와 만나는 활동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는 지각하는 작용을 뜻하기도 하고 지각된 내용물을 가리키기도 한다. 우리의 모든 인지 활동이나 지각 활동은 지각 주체와 지각 대상을 두 축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어떻게 정신적인 활동을 하

는 인간이 그와는 전혀 다른 바깥 세계의 사물을 만나는가 하는 물음을 던질 때, 우리는 쉽게 감각 이미지와 같은 어떤 중간적인 것을 떠올리기 쉽다. 사과를 예로 들어 보자. 사과가 없는 곳에서도 우리는 쉽게 빨강고 둥근 어떤 영상을 마음에 떠올릴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사과에 대한 지각은 성립하는데, 단 이는 사과를 직접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에 대한 영상을 매개로 하여 그러한 지각을 이룬다고 가정하는 셈이다.

이제 현학적인 이론가는 쉽게 이렇게 이론화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사물을 직접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아니 어쩌면 세계는 바로 이러한 영상으로만 이루어져 있을 지도 모른다. 인간과 세계 사이에는 넘으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계면(interface)이 자리하고 있다.

김효명에 따르면, 근대 철학자들은 '관념(idea)'을 바로 이러한 영상과 같은 것으로서 가정하였다.¹⁾ 관념은 관찰자와 외부 대상을 매개해 주는 일종의 중간자 역할을 한다. 어떤 것을 지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상정하여 보자. 여기서 일어나는 물음은 바로 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이다. 이것은 물리적인 것일 수 없고 그를 대신한 인지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 인지적인 것이 관념이다.

에이어(A. J. Ayer)는 근대의 '관념'을 '감각자료(sense data)'라는 말로 대치한다. 에이어에 따르면, 감각자료는 물리적 대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도입하여야 하는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다.²⁾ 에이어는 이러한 매개물인 감각자료가 물리적 대상에 대한 우

1) 김효명(2001), <영국경험론>, 33면 참조. 대상이 지각되는 것은 그 대상이 마음에 표상되기 때문이다. 대상 자체가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의 표상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표상을 17세기 이론가들은 '관념'이라 칭하였다.

2) Ayer, A. J. *The Problem of Knowledge* (Penguin Books, 1956) 84-133쪽 참조. 에이어가 감각자료를 도입하는 방식은 이러하다. 나는 담배갑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 나에게는 내가 담배갑을 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나는 지금 나에게 드러나 보이는 담배갑(a seeming-cigarette case)을 보고 있다. 이러한 절차를 진실한 것이든 망상적인 것이든 모든 지각의 사례에 적용하면, 누군가가 물리적 대상을 지각할 때는 언제든지 또는 자신이 물리적 대상을 지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든지 그는

리의 믿음을 확실하게 보장해 준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생각은 인지과학의 이론적 핵심인 인지주의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인지주의에 따르면, 마음은 디지털 컴퓨터와 같은 정보처리장치이다. 마음은 세계의 특징을 표상하는 기호를 처리한다. 즉 기호는 정신적 표상인 셈이다. 이러한 표상은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어떤 것인가에 상관없이 제 기능을 훌륭하게 수행하며, 물리적인 것 등으로 환원할 수 없는 독자적인 존재의 계(system)를 이루고 있다. 이제 표상은 인간과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물로서 자신의 독자적인 지위를 공고히 갖게 된다.³⁾

인지가 근본적으로 표상이라는 생각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담고 있다. 우리는 길이와 색깔과 소리와 같은 특정한 속성들을 가지는 세계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속성들을 내적으로 표상하여 회복한다.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런 생각을 비판하고자 한다. 고정된 속성을 지닌 미리 주어진 세계란 없고, 세계는 우리와 함께 항상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지각 활동은 두뇌 속에 있는 내적인 표상이 아니라 세계로 향해 있는 것이다. 마음과 세계 사이에 표상이라는 계면(interface)을 상정하게 된다면, 이러한 지각적 활동의 본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2. 마음/세계의 계면으로서 감각자료

(1) 착각에 의거한 논변

에이어는 ‘지각의 문제’를 ‘물리적 대상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적어도 적절한 의미에서 그에게 드러나 보이는 대상(a seeming-object)을 지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바로 이러한 대상이 감각자료이다.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것은 바로 항상 감각자료인 것이다.

- 3) Fodor, J. A. *Psychosemantics* (A Bradford Book/The MIT Press, 1987) 16-26쪽 참조. 마음에 관한 표상이론의 핵심은 사고언어를 가정하는 것이다. 즉 명제적 태도의 즉각적인 대상으로서 기능하고 정신적 과정의 도메인으로서 기능하는 무한한 일련의 ‘정신적 표상들’을 가정하는 것이다.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⁴⁾ 로크를 비롯한 많은 철학자들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토대론적인 기초를 찾으려고 했고 그들은 감각적 지각이 이러한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로크 등에 따르면, 지각에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관념이나 인상이나 현시나 감각자료이다. 이러한 감각자료는 단지 관찰자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감각자료만이 직접적으로 지각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착각에 의거한 논변(argument from illusion)'을 그 근거로 삼는다. 같은 대상이 여러 관찰자에게 다르게 보인다. 동일한 관찰자인 경우에도 그가 처한 상황이 변하면 그 대상은 달라 보인다. 따라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대상 자체가 아니라 감각자료이다.

에이어는 이러한 결론이 우리의 상식적인 언어 사용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대상이 때로 그것이 지닌 본 모습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본 모습을 결코 지각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떤 대상이 지닌 본 모습을 직접 지각하는 것은 단 한 번일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본 모습이 지각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본 모습을 지각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경험 그 자체에서는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모든 경우에 우리가 직접 지각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감각자료'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에이어는 감각자료의 도입 문제가 단지 말의 사용상의 편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일까? 그가 제시하고 있는 착각에 의거한 논변 사례를 중심으로 그의 의도를 파악해 보자⁵⁾.

곶은 막대기를 물에 넣으면 굽어보인다. 막대기가 곶으면서 동시에 굽을 수는 없기에 이 경우 우리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사물이 지니는 참된 성질이 아닐 경우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떤 것을 보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감각자료'라고 부를 수 있다. 이러한 감각자료는 사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

4) Ayer, A. J. *The Problem of Knowledge* 84쪽

5) Ayer, A. J. *The Problem of Knowledge* 87-95쪽 참조.

과정에서 우리가 직접 알아채는 어떤 것이다.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고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자. 에이어에 따르면 신기루를 보고 있는 사람은 사물을 지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지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오아시스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도 그는 감각자료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에이어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착각(illusion)의 전형적인 경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착각은 그 지각 대상이 실제로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굽어보이는 막대기는 착각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신기루의 경우도 그러한가? 에이어는 신기루를 보고 있는 사람은 사물을 지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 지각의 대상은 실제로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망상(delusion)의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과대 망상과 피해 망상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차이를 쉽게 알아챌 수 있다.

막대기의 사례에서 사물에 속해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말한다. 사물에 속해 있지 않다면 도대체 그것은 무엇일까? 굽어보이는 막대기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그 상황 설정은 이러했다. “곧은 막대기를 물에 넣으면 굽어보인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막대기의 일부가 물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일부는 물 밖에 나와 있다는 점이다. 에이어에 따르면, 물 밖에 나와 있는 막대기의 부분은 사물의 일부이고 물 속에 담겨져 굽어보이는 부분은 사물의 일부가 아니라고 해야 하는 것일까? 또한 우리는 굽어있는 막대기만을 보고 있지 그것이 담겨 있는 물은 보고 있지 않다고 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상식적이지 못한 물음을 던지게 된 이유는 문제 상황을 불분명하고 지각 과정에 이미 ‘감각자료’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신기루를 보는 사람은 망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는 사물을 보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도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있고, 이는 실제의 오아시스를 보는 경우와 구분할 수 없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감각자료이다. 이 사례는 지각의 대상은 사실 감각자료라는 에이어의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

는 듯 보이면서도 그러한 주장의 불합리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보여지는 그 무엇의 위치는 그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다는 점에서 지각 주체의 감각 기관에 자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대상적 의미에서 정당하게 감각자료라고 불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에이어는 이에서 더 나아가 신기루를 보는 경우와 실제의 오아시스를 보는 경우를 구분되지 않는 동질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굽어보이는 막대의 경우보다 더 비약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신기루를 만났을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신기루의 경험은 분명 실제의 오아시스를 경험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정리하자면, 착각에 의거한 논변은 다음을 의도하고 있다. 첫째, 어떤 예외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감각자료이다. 둘째, 정상적인 경우에도 우리가 지각하는 것은 항상 감각자료이다. 물속의 굽어보이는 막대기에 대한 나의 경험과 실제로 굽어있는 막대기에 대한 나의 경험은 질적으로 동일하다. 먼 거리에서 어떤 사물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 사물은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이다가 점점 커지고 그 참된 크기에 이른다. 즉 이 경우의 지각은 착각으로부터 시작하여 참된 지각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연속적인 지각의 경우에 착각과 참된 지각을 구분하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가? 그러한 차이는 단지 정도상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종류상의 차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착각이 감각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참된 지각도 감각자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감각자료 이론에 대한 비판

오스틴(J. L. Austin)은 에이어의 논변에 있어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⁶⁾ 에이어는 ‘감각자료’와 ‘사물(material thing)’이라는 이분법과 더불어 지각을 착각 내지는 망상과 참된 지각으로 나누고 있는데,

6) Austin, J. L. *Sense and Sensibilia*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20-103쪽 참조.

이는 인위적인 구분일 뿐이다. 또한 그는 이 둘 사이에 아무런 질적 차이도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분명히 그릇된 것이다. 물 속에서 굽어보이는 막대기에 대한 경험과 실제로 굽어있는 막대기에 대한 경험은 전혀 다른 것이고, 신기루에 대한 경험과 실제의 오아시스에 대한 경험 또한 전혀 다른 것이다. 에이어는 지각이 이루어지는 상황적인 측면을 모두 무시해 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부대적인 상황은 지각의 초점이 되는 사물과 더불어 함께 지각 대상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여러 심리학적인 탐사는 보고하고 있다. 결국 에이어는 동질적인 것만을 남기기 위하여 서로 상이한 부분은 모두 제거해 버리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에이어가 말하는 참된 '경험적 사실'은 사실 항상 '감각적 현상'에 대한 것이고, '사물'에 대한 언명은 바로 하나의 화법으로서 대조를 위한 것이다. 그는 감각자료를 어떻게 도입하는가? '지각한다'는 말은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것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감각자료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에이어는 감각자료의 도입이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적인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다.⁷⁾ 철학자들은 '본다'와 같은 지각의 어휘를 참된 경험의 경우와 더불어 착각 내지는 망상의 경우에도 함께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은 '경험되는 것'이 항상 물질적인 사물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한다. 착각의 경우에 사물이 진실로 존재하지 않거나 그것이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속성을 실제로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기로 결정한다. 착각의 경우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감각자료이다. 다음으로 그들은 '망상적 지각'과 '참된 지각'이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익숙한 근거에서 이러한 사용법을 모든 경우로 확장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제 우리는 다음의 결론에 도달한다. 모든 지각에서 우리가 직접 의식하는 대상은 감각자료이지 물질적인 사물이 아니다. 이러한 절차가 어떤

7) Ayer, A. J. *The Problem of Knowledge* 95-104쪽 참조.

사실적인 발견을 구현해내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에이어는 말한다. 이는 새로운 언어의 사용법을 권고하는 것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한 사실을 좀더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⁸⁾

이러한 논변의 핵심부는 '지각'이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는 명확하고도 익숙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할까? 나는 물 속에서 굽어보이는 막대기를 지각한다. 에이어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의 지각은 막대기가 실제로 굽어있다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 여기에서 지각의 의미는 그 대상이 가지는 것처럼 보이는 속성을 실제로 가지지 않는 경우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사실은 굽어보이는 막대기가 실제로는 굽어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각의 특별한 의미에 따른 것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이들에게 물어 보자. 동물원 호랑이를 보고 '저게 호랑이야'라고 말하는 경우와 동물 그림책에 나와 있는 호랑이를 보고 '이게 호랑이야'라고 말하는 경우, 서로 다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인 지. 에이어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경우에는 동물인 '호랑이'고 다른 경우에는 그림인 '호랑이'를 의미한다고 말해 준다면 듣고 있던 아이는 웃고 말 것이다.

우리가 '본다'거나 '듣는다'라는 지각의 어휘를 에이어처럼 익숙하게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의도하면서 사용할 수 있을까?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거짓말하던 양치기 소년의 경우처럼 기르던 양을 모두 잃게 되는데도 이러한 용법을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지각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무척이나 다양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기술하기 위하여 우리는 '지각'이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할 필요가 없다. 단지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지각할 수 있고, 또한 이 것을 여러 방식으로 다르게 기술할 수 있다. "때때로 보여지는 것을 말할 하나의 올바른 방식이란 없을 것이다. 그것을 보는 하나의 올바른 방식이란 있을 수 없다는 부가적인 이유로 인하여."⁹⁾

8) Ayer, A. J. *The Foundations of Empirical Knowledge* (Macmillan, 1940) 19-28쪽 참조.

9) Austin, J. L. *Sense and Sensibilia* 101쪽 참조.

이렇게 감각자료를 마음과 세계 사이의 계면으로서 가정하는 이론은 우리의 건전한 상식을 훼손해 버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계 속에서 세계의 한 일원으로서 지각 주체가 연출해내는 다양한 활동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다. 감각자료 이론가는 모든 경험의 확고한 토대를 발견하기 위해 마음과 세계라는 두 극단을 가정하고, 모든 것이 이 두 극단으로 몰아세워 버린다. 이는 현대 인지과학의 근간이 되는 이론인 인지주의에서도 모양만 바꾼 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론가의 태도라고 할 수 있다.

3. 감각자료에서 인지주의적 표상으로

(1) 인지주의와 표상

‘계산적 기능주의’ 내지는 ‘인지주의’는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기호 처리’와 같은 것으로 바라본다.¹⁰⁾ 즉 인지 작용을 기호적 코드의 형태로 두뇌에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표상에 기초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컴퓨터에서 기호는 물리적으로 실현되어 있으면서도 의미론적인 값을 가진다. 프로그래머가 의미론적인 요소를 기호의 구문론에다 코드화 시켜 놓기 때문이다. 컴퓨터의 계산은 바로 이러한 기호에서 이루어지며, 기호간의 의미론적인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두뇌는 ‘사고 언어’와 같은 표상의 차원에서 그 활동을 수행한다.¹¹⁾ 이렇게 인지주의는 독립성을 지니는 표상적 차원을 가정하고 있다.

인지주의에 따르면, 지적인 행동은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표상하는 능

-
- 10) Fodor, J. A. *A Theory of Content and Other Essays* (A Bradford Book/The MIT Press, 1990) 22쪽 참조. 포더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인지주의가 18-9세기의 표상주의에 비하여 진보한 것이 있다면, 컴퓨터를 마음의 모형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 11) Fodor, J. A. and Pylyshyn, Z. W. “Connectionism and cognitive architecture: A critical analysis” in *Connections and Symbols* (The MIT Press/A Bradford Book, 1989) 3-71쪽 참조.

력을 가정한다. 자신의 주변 상황을 잘 표상하는 행위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표상 개념은 비교적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다음의 주장이다. 인지는 두뇌 안에 기호적 코드의 형태로 물리적으로 실현되는 표상들에 기초하여 행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표상적인 상태가 물리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 여기에서 기호적인 계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 기호는 물리적인 것이면서 의미론적인 값을 지닌다. 계산은 바로 그러한 의미론적인 값이 지배하는 기호상의 연산이다. 계산은 근본적으로 의미론적인 것이거나 표상적인 것이다. 계산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기호적 표현들 사이의 의미론적인 관계에 눈을 돌려야 한다. 디지털 컴퓨터는 기호들의 물리적 형태에만 접근할 수 있고 그 의미론적인 값은 접근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연산은 의미론적으로 제약된다. 컴퓨터에서 구문론은 의미론을 반영하거나 그에 평행하다. 지성이 물리적이고 기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바로 이러한 평행론이 보여준다. 컴퓨터는 기계적인 사고 모형을 제공하고, 사고는 물리적이고 기호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진다. 인지과학은 바로 이러한 인지적이고 물리적이며 기호적인 시스템에 관한 연구이다. 인지주의는 물리학과 신경 생물학의 수준에 더하여 인지의 설명에 있어서 따로 구분되며 환원할 수 없는 기호적 표상의 수준을 가정한다.¹²⁾

포더에 따르면, 인지과학은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세계의 관계와 관련해 있고, 이러한 관계에 관한 이론들은 표상적인 속성과 인과적인 속성을 지니는 정신적 상태를 가정하고 있다. 한 생물이 지니는 정신적 상태의 표상적인 속성은 그 환경이 담고 있는 성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성격에 관한 정보를 실어 나르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 생물이 지니는 정신적 상태의 인과적 속성은 그 정신적 과정의 경로를 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행동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의미론

12) Clark, A. *Microcognition: Philosophy, Cognitive Science, and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A Bradford Book/The MIT Press, 1989) 9-24쪽 참조.

적이고 인과적인 속성 양자를 내보이는 정신적 실재를 포괄하여 ‘정신적 표상’이라고 부른다.¹³⁾

정리하자면, 인지주의는 다음과 같이 묻고 답한다. 인지란 무엇인가? 기호적 계산과 같은 정보 처리이다.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 기호적 요소의 연산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그 작용 단위는 기호들의 의미가 아니라 기호들의 형태이다. 언제 인지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는가? 기호가 적절하게 세계의 모습을 표상하고 정보 처리가 성공적인 해결로 이끌 때이다.

(2) 인지주의적 표상에 대한 비판

셀라즈(W. Sellars)는 <경험주의와 마음의 철학>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표상 이론들에 자리한 그림은 내적인 극장 내지는 내적인 영화 스크린에 대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¹⁴⁾ ‘우리가 보는 색깔’은 사실 외부 대상의 속성이 아니라 내적인 영화 스크린에 맺히는 이미지가 가지는 속성이다.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라보는 대상들은 단지 내적인 극장 내지는 내적인 영상 스크린상에 있는 대상들일 뿐이다.

셀라즈의 ‘내적인 극장’의 비유는 데넛(D. C. Dennett)의 ‘데카르트적 극장’의 비유로 이어진다. 데카르트적 극장은 의식으로 깨어나기 위하여 모든 것이 들고나는 곳이다. 데넛에 따르면, 우리는 그 어떤 매개물도 통하지 않고 세계를 직접 지각한다. 표상이라든가 사고언어와 같은 매개물을 상정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다 표상이 이루어내는 수많은 극을 상연하는 극장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지각 작용에는 단지 우리의 두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미시적 작용이 있을 뿐이며, 입력과 출력을 매개

13) Fodor, J. A. *Concepts: where cognitive science went wrong* (Clarendon Press, 1998) 1-22쪽 참조.

14) Sellars, W.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ed. Feigl, H. and Scriven, 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6) 1권 과학의 기초와 심리학 및 심리 분석의 개념 참조.

하는 표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¹⁵⁾

인지주의는 다음의 생각을 강하게 내비치는 것이다. 우리의 인지와는 무관하게 세계는 저기 밖에 있고, 인지는 바로 이러한 독립적인 세계에 대한 표상이다.

인지는 항상 세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거나 표상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명 방식에서 표상은 별 문제 거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도는 어떤 지리학적인 영역을 해석하는 것이다. 지도는 그러한 영역의 어떤 특징을 표상하고 그 영역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표상의 의미는 약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어떤 강한 인식론적이거나 존재론적인 개입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표상의 의미는 실용적인 것으로서, 우리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그것을 항상 사용한다.

이제 이러한 표상이 어떻게 존재론적인 물음이나 앎의 물음과 관련하여 무거운 의미를 담게 되는지 살펴보자. 이러한 과정을 바렐라(F. J. Varela) 등은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우리는 약한 표상적 의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각이나 인지 일반의 작동 방식에 대한 완숙한 이론을 구성하려고 시도한다. 이 경우 우리는 이중의 작업을 수행한다. 우리는 먼저 세계가 미리 주어진 것으로서 생각한다. 세계의 특징은 그 어떤 인지적 활동보다 앞서 명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음과 미리 주어진 세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정신적 표상이 존재한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이러한 표상은 이미지나 기호나 신경적인 활성 패턴일 수 있다. 이제 완숙한 이론은 이렇게 기술한다. 첫째, 세계는 미리 주어진 것이다. 둘째, 우리의 인지는 이 세계에 대한 것이다. 셋째, 우리는 미리 주어진 세계의 특징을 표상하고, 이러한 표상에 기초하여 행위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는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세계에 뚝 떨어진 인지적 행위자라는 생각을 담고 있다. 이 행위자는

15) Dennett, D. C. *Consciousness Explain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101-138 쪽 참조.

세계의 특징을 내적인 표상으로 회복하거나 구성해낼 것이다. 그의 생존 여부는 이러한 표상 체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내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가이다.¹⁶⁾

이제 실재론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이론가는 자연스레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우리의 관념적 표상과 그것이 비추어내는 세계 사이에는 구별이 있다. 표상의 타당성을 판정할 수 있는 궁극적인 법정은 바로 우리의 외부에 독자적으로 주어져 있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이때 관념론적인 이론가는 재빨리 다음의 사실을 지적할 것이다. 표상을 통하지 않고서 우리는 결코 그러한 독립적인 세계에 접근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바깥세계가 우리의 표상으로 이루어진 대상이라는 것밖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다. 어쩌면 표상과는 독립되어 있는 세계라는 바로 그 생각 또한 이차적인 표상에 불과한 것일 지도 모른다.

세계에 대한 모든 지식의 기초가 되는 선형적인 표상에 대한 추구는 인지과학과 더불어 환경의 특징을 반영해 주는 후천적인 표상에 대한 추구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모든 경험적 지식의 기초로서 '감각자료'에 대한 논의가 지각 활동의 단위가 되는 개별적 '표상'에 대한 논의로 옮겨갔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감각자료 이론이 가정하고 있었던 '고정된 세계'와 이를 거울처럼 비추어내는 정적인 '마음'이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각을 계속하여 갖고 있는 한, 우리는 세계 속에서 다른 사물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지각 주체의 활동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다.

4. 표상 없는 지각이론

지각을 지각 주체의 행위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표상을 외부 세계를 비추는 거울로서 바라보는 시각은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16) Varela, F. J., Thompson, E. and Rosch, E. *The Embodied Mind* (The MIT Press, 1995) 133-145쪽 참조.

견지에서 톰슨(E. Thompson)은 표상주의에 자리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표상주의는 지각 주체와 그를 둘러싼 환경을 전혀 다른 체계로서 간주한다. 외부 세계의 세부는 미리 명시되어 지각 주체에 독립적인 입력 자료를 제공한다. 지각 주체는 이렇게 미리 주어진 세계의 특징을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입출력 시스템이라고 간주한다. 둘째, 표상주의는 지각 능력과 운동 능력을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지각 시스템은 믿음을 고정하기 위한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믿음에 기초하여 지각 주체는 자신의 활동을 달리 할 수 있으나, 이는 지각 과정의 일부로서 간주되지 않는다. 셋째, 지각은 환경을 형성하지 않고 단순히 환경을 회복한다.¹⁷⁾

톰슨은 이러한 표상주의적인 생각이 환경 속에 자리하여 활동해 나가는 지각 주체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게 한다고 본다. 생태학적인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지각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는 길은 바로 지각과 행위를 분리하여 보지 않는 것이다. 이제 마음은 수동적으로 미리 주어진 세계의 특징을 회복하는 입출력 장치로 간주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은, 환경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세계를 탐사하는 활동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환경은 더 이상 준거점이 아니고, 마음은 창발적이고 자율적인 네트워크로서 간주된다.¹⁸⁾

두뇌의 생리학적인 구조와 그 작동 방식 또한 인지주의적 표상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지주의에 있어서 정보는 소정의 양을 지닌 것으로서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가 바로 인지 체계의 입력물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입력물은 인지 체계가 행동이라는

17) Thompson, E. *Color Vision: A study in cognitive science and the philosophy of perception* (Routledge, 1995) 220-232쪽 참조.

18) 이와 같은 견지에서 클락은 두뇌를 외적인 사태에 대한 내적인 기술의 장소(a locus of inner descriptions of external states of affairs)로서 보지 말자고 제안한다. 두뇌는 행위를 제어하는 역할을 통하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내적인 구조의 장소로 보아야 한다. Clark A, *Being There: Putting Brain, Body, and World Together Again* (A Bradford Book/The MIT Press) 48쪽 참조.

출력물을 내놓기 위한 전거가 된다. 하지만 두뇌가 거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를 이루는 것으로 바라볼 때, 어디에서 정보가 끝나고 행동이 시작되는지 규정할 길이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두뇌는 분산된 형태의 수많은 연결관계에 기초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뉴런 뭉치간의 사실적인 연결관계는 경험의 결과로서 변화한다. 이러한 뉴런 뭉치는 기호처리의 패러다임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는 자기 조직의 능력을 드러낸다. 인지 체계는 기호와 규칙이 아니라 압축적이고 역동적으로 연결되는 단순한 요소에서 시작하여 구성될 수 있다. 관련된 모든 뉴런의 상태가 상호 만족스런 상태에 달할 때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총체적인 협력이 있다.¹⁹⁾

이러한 견지에서 민스키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공장에서 차를 생산하듯이 두뇌가 생각을 제조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분명한 차이가 있다. 두뇌는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과정을 사용한다. 이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과 그 과정 자체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두뇌는 기억을 만들고, 그 기억은 그 다음 생각으로 변화한다. 두뇌의 주요한 활동은 스스로 변화를 만드는 것이다. 자기 수정 과정이라는 전체의 생각은 경험상 새로운 것으로서, 이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바로 신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²⁰⁾

여기에는 표상이라는 개념이 없다. 민스키는 두뇌의 주요한 활동이 외적인 세계를 표상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연속적인 자기 수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제 독립적이고 외적인 것으로서 세계라는 생각은 이러한 자기 수정의 구조로부터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서 세계라는 생각으로 이행한다. 인지 시스템은 그 과정의 결과가 그 과정 자체가 되는 체계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체계는 표상에 의해 작동하지 않고, 자기 수정의 구조 속에 세계를 포섭하고 세계와 함께 작용한다.

19) Varela F. J., et. al. *The Embodied Mind* 85-103쪽 참조.

20) Minsky, M. *The Society of Min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6) 288쪽 참조.

5. 맺음말

우리는 세계가 미리 주어져 있고 마음은 이를 거울처럼 비추어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지주의와 관련하여, 정보가 세계 내에 미리 고정된 것으로서 존재하고 인지 체계가 그것을 추출해 낸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계를 고정적이고 안정된 준거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이론가들은 이러한 생각을 버리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는 앎과 관련하여 그들이 세워놓은 딜레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지식의 출발점이 되는 확고하고 안정된 기초를 찾아내어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혼동만이 가득한 어둠 속에 남겨지고 말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 내지 불안 때문에 그들은 마음과 세계를 확고한 두 축으로서 마음과 세계를 가정하게 되고, 절대적인 지식의 기초를 찾아 이 둘 사이를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우리는 실제로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 단지 세계를 비추어내는 우리의 표상에 대한 지식만을 가질 뿐이다. 우리는 이러한 표상을 마치 세계 자체인 양 생각하고 살 수 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상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이론가들은 표상주의 지각 이론을 전면에 내세운다.

하지만 그들이 세계에 대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는 지각 주체인 우리의 이해 능력에서 비롯된 계속적인 해석의 결과이다. 이러한 능력은 환경 속에 자리한 우리의 생물학적인 구조에 뿌리잡고 있으며,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몸과 사회의 역사라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마음과 세계는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며 함께 걸어가고 있는 상관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리하자면, 지각이 마음과 세계 사이에 자리한 계면을 담고 있다는 생각하는 한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세계와 접촉하는 방식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그 동안 이러한 계면이 인상이나 관념이나 감각자료나 표상 등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가정되곤 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계면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각 활동에서 마음이나 머리 속의 표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진정한 성질을 가지는 나무와 산과 새들을 직접 만난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 자체가 바로 우리의 지각 활동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효명 <영국경험론> (아카넷, 2001).
- Austin, J. L. *Sense and Sensibilia* (Oxford University Press, 1962).
- Ayer, A. *The Foundations of Empirical Knowledge* (Macmillan, 1940).
- The Problem of Knowledge* (Penguin Books, 1956).
- Clark, A. *Microcognition: Philosophy, Cognitive Science, and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A Bradford Book/The MIT Press, 1989).
- Being There: Putting Brain, Body, and World Together Again* (A Bradford Book/The MIT Press).
- Dennett, D. C. *Consciousness Explained* (Little, Brown and Company, 1991).
- Fodor, J. A. *Psychosemantics* (A Bradford Book/The MIT Press, 1987).
- A Theory of Content and Other Essays* (A Bradford Book/The MIT Press, 1990).
- Concepts: where cognitive science went wrong* (Clarendon Press, 1998).
- Fodor, J. A. and Pylyshyn, Z. W. "Connectionism and cognitive architecture: A critical analysis" in *Connections and Symbols* (The MIT Press/A Bradford Book, 1989), pp. 3-71.
- Minsky, M. *The Society of Mind*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6).
- Sellars, W.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Minnesota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Science* ed. Feigl, H. and Scriven, M.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56).
- Thompson, E. *Color Vision: A study in cognitive science and the philosophy of perception* (Routledge, 1995).
- Varela, F. J., Thompson, E. and Rosch, E. *The Embodied Mind* (The MIT Press, 1995).